**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

**<요한복음 9장 1-7절>**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던 사람, 즉 태어난 이래 한번도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딱하게 여겼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것은 그 자신이나 부모의 행실에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유대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던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에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해산과 노동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주인 몰래 나아만 장군에게서 재물을 취함으로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겪는 질병이나 장애, 혹은 삶의 문제가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나 장애, 혹은 삶의 문제를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는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남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대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은 욥과 그 주위 사람들을 혼란과 오류에 빠뜨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계속 믿을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 지혜로 그 고난의 이유를 해석해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니 분명 욥이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욥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 없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께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에게 닥쳤던 고난과 문제의 상황은 이처럼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종결됩니다.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 여전히 욥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전보다 더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였다”**

욥이 당한 고난이 그의 죄의 결과일 것이라는 그들의 해석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욥의 항변이 더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이나 장애나 문제의 상황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 그 고난의 상황을 섣불리 죄와 직결시켜 해석하는 일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처럼 내 친구나 이웃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대신 해석해주겠다는 시도는 상대방에게 도움이나 위로가 되기는커녕 아픔과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대해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장애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받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나 장애나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의미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포기와 정죄의 관점이 아니라 희망과 구원의 관점입니다.

사람을 죄로 인해 끝장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어떤 사람도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만 맹인이라 하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영적인 맹인도 있습니다.

감겨있던 육신의 눈을 뜨게 되는 것만을 구원이라 하겠습니까?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그처럼 병들고 문제많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사람이 병들고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쓸모없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병들고 문제가 많기에 더더욱 예수님 당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면을 보고 그를 나와 상종 못할 사람으로 매도하거나 배제시키려는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질병이나 장애나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매우 손쉬운 해결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던 영적인 질병과 장애와 문제를 그저 우리 각자의 책임으로만 돌려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보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질병이나 장애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들 혼자 감당해야 할 불행으로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 그 사람 옆으로 보냄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가능하셨을텐데, 왜 굳이 이런 번거롭고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날은 안식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도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유과정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이 수고로운 치유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질병이나 장애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처럼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그것은 주위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꼭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보냄받아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런 어려움 쯤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질병이나 장애나 문제를 가진 사람 옆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지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 질병이나 장애를 치유받진 못해도,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은혜 가운데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형제자매가 가진 질병이나 장애나 삶의 문제가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2-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바로 이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이 불편한 친구나 이웃을 대신하여 그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이르기 어렵다는 것을 안 그들은 예수님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 병자의 침상을 예수님께로 달아 내리는 열심을 보입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같은 마을 병자의 치유를 바라고 이런 수고와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엑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람을 받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내 주위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찬찬히 살피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대하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위에 질병이나 장애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질병이나 장애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 안에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질병이나 장애나 삶의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